

단풍꽃 만발 내장산 걸으며 힐링~

정읍시 '히든로드'·'산천유수' 트레킹 여행상품 출시...서울 출발 로컬푸드 직매장·쌍화차 거리 방문

정읍시가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첫 단추로 지역 대표자원인 내장산 테마상품을 시범 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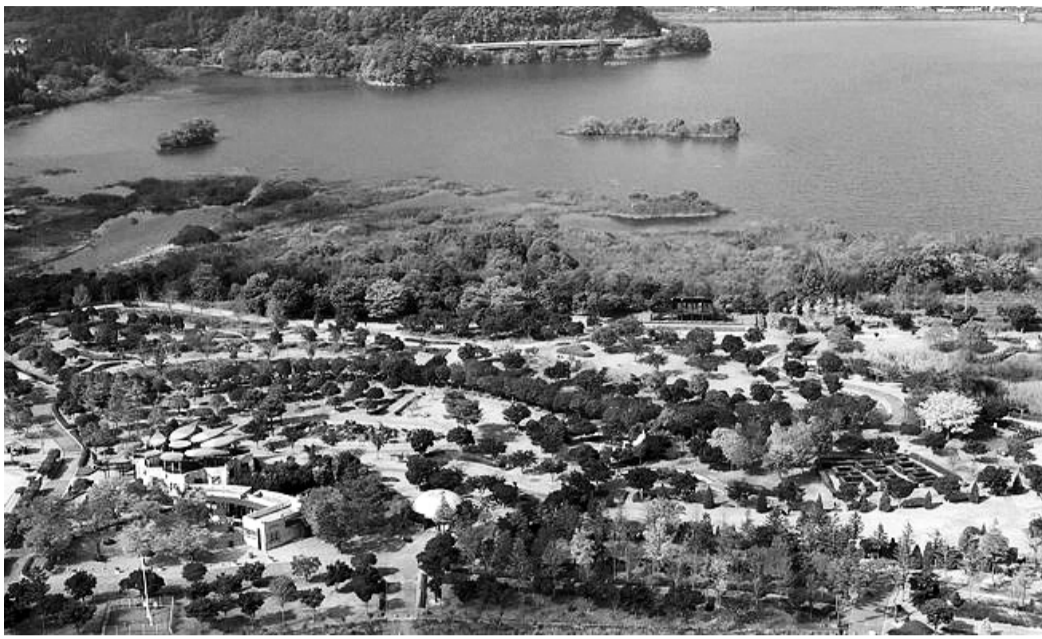
정읍시는 가을 내장산의 아름다움을 사계절로 확장함으로써 숨겨진 명소를 트레킹으로 돌아볼 수 있는 코스를 개발했다며 트레킹 전문 여행사 '승우여행사'와 협력해 '내장산 히든로드'란 이름의 트레킹 상품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시범 판매되는 이 여행상품은 '오색단풍 히든길'과 '산천유수 히든길'이란 두가지 코스로 구성됐다.

'오색단풍 히든길'은 추령 옛길을 따라 장군봉과 연자봉, 전망대를 지나 내장사에 이르는 3시간 중급 난이도 코스로 오는 30일과 11월 2일, 6일에 운영된다. 단풍철에도 비교적 한적한 내장산의 숨겨진 경관을 만끽할 수 있고 우화정과 내장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은 물론 첩첩산중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다.

'산천유수 히든길'은 솔티마을을 출발해 동석계곡과 편백숲, 내장산조각공원 등을 지나 내장호 둘레길로 이어지는 2시간의 코스로 11월 6일과 9일, 13일에 운영된다.

두 코스 모두 서울에서 전용버스를 타고 정읍으



'내장산 히든로드' 트레킹 상품 중 '산천유수 히든길'에 포함된 내장산생태공원과 내장호 전경.

로 이동해 일정을 소화하는 당일 일정이다.

트레킹 외에도 로컬푸드 직매장과 쌍화차 거리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 포함돼 있어 관광객들에게는 정읍만의 특산물도 선보이고 지역 상권에는 관광객에 의한 활력이 기대된다.

내장산은 매년 가을철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지만 계절적 편중이 심한 편이다. 시가 마련한 이번 트레킹 상품이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는 계기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더해줄 것이라 기대된다.

승우여행사 이원근 대표는 "내장산은 사계절 내

내 색다른 매력을 지닌 트레킹 최적지"라며 "이번 히든로드 코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내장산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즐기길 바란다"고 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내가 걸은 만큼 내 인생"이라는 말처럼 가을의 내장산을 직접 걸으며 올해 정읍의 가을을 온전히 기억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여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정읍의 매력을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춘향제' 무형유산적 가치 재조명

농약전수관서 학술대회...세계유산 등재 등 주제 발표·토론

남원시가 '춘향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와 미래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남원시는 지난 18일 남원시립농약단 농약전수관에서 (사)무형문화연구원(원장 함한희)와 함께 '남원 춘향제의 무형유산적 가치발굴 및 육성 학술대회'를 가졌다.

춘향제는 1931년 춘향을 기리는 제향이 시작된 이래 일제강점기, 6·25전쟁, 민주화 시기 등 역사적 격변기 속에서 한해도 거르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온 남원 문화의 중심에 있는 무형유산이다.

남원은 '춘향골', '춘향의 고장'으로 불리는 문화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춘향제를 통해 하나로 화합함과 동시에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자긍심을 키워왔다.

시에서는 학술대회를 통해 현재까지 이어진 춘향제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전승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해 미래 무형유산으로서 춘향제

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확산하고자 한다.

그간 춘향제는 민속학, 국어국문학, 인류학, 관광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학술적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남원 춘향제의 기록과 전승, 정체성과 미래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들은 심도 있는 의견을 통해 유네스코 협약의 정신과 미래 방향 및 한국의 무형유산 협약 모범사례 등재에 대해 면밀히 살폈다.

또 춘향제 아카이브 현황과 시민들의 목소리, 무형유산으로서 춘향제 전승 환경 조성고 체계화, 춘향제를 통해 본 춘향의 위상과 의미를 재조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춘향제의 100여 년 자료를 집대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특성화 콘텐츠 개발과 무형유산 전승 네트워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가을꽃 만발' 지리산 허브밸리서 추억 쌓기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가 아름다운 가을꽃으로 물들었다.

남원시는 지리산 허브밸리 진입광장과 원형광장 1.2ha 공간에 3색 국화화단을 비롯해 4ha 규모의 경관부지의 황화 코스모스단지의 꽃들이 만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방문객들에게 화사한 경관을 뽐내는 한편 포토존으로서 이곳을 찾는 가족과 연인 등의 추억만들기를 돕고 있다고 전했다.

허브밸리 내에는 열대식물원, 지리산 자생식물압화관, 야생화 사진 전시관과 자작나무 숲 등이 조성돼 있다.

스텝프투어와 식물정원 해설 투어(예약제), 도자기 화분 꽃 심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방문객들의

나들이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선선한 날씨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며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내 국화꽃밭.

알록달록 레이저쇼...빛으로 물든 고창읍성의 밤

고창군, 596개 경관조명 매주 금·토 AI 기술 적용 대나무숲 '맹종죽립 아트쇼' 인기

고창군이 지역 랜드마크인 '고창읍성' 전체 성곽 둘레 1684m를 포함 관아건물 9동에 596개의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고창읍성의 건축미와 조형미를 돋보이게 하는 경관조명과 함께 최근 마무리된 '제51회 모양성제'에서도 호응이 컸던 '맹종죽립 아트쇼'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매주 금·토요일 저녁시간에 펼쳐지는 맹종죽립 아트쇼는 읍성 안쪽 울창한 대나무숲에서 AI 기술을 기반으로 고창의 계절과 날씨 정보를 통해 연출된다.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산내음과 신비한 소리, 알록달록 레이저쇼가 더해진 대나무숲의 아름다운 야경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고창군의 관문인 흥덕 제해교차로에 설치된 '세계유산도시 조형물'도 새로운 도시경관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노동저수지 수상데크 역시 도시의



고창읍성(모양성)의 야간 경관.

밤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의 자랑인 읍성과 군민들의 생활공간이 환하게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며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고창만의 특별한 밤을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새일센터, 여성 친화기업 8곳과 일촌 협약

채용·승진·임금 등 차별 해소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 일자리 활성화 및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8개 업체와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주식회사 세립현미 ▲이현주 세무회계사무소 ▲이재주·공병일 세무회계사무소 ▲정읍지역지원센터 ▲늘푸른실버홈노인복지센터 ▲열린주야간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상담회 정읍시립요양병원 ▲농부애마트 등이다.

이들 업체는 상호협약서를 교환한 뒤 협약을 상징하는 현판을 전달받았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은 채용, 승진, 임금 등에서 여성 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며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는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읍새일센터는 협약 업체에 새일여성인턴십 우선 연계, 성희롱 예방 등 재직자 교육, 구인·구직 취업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